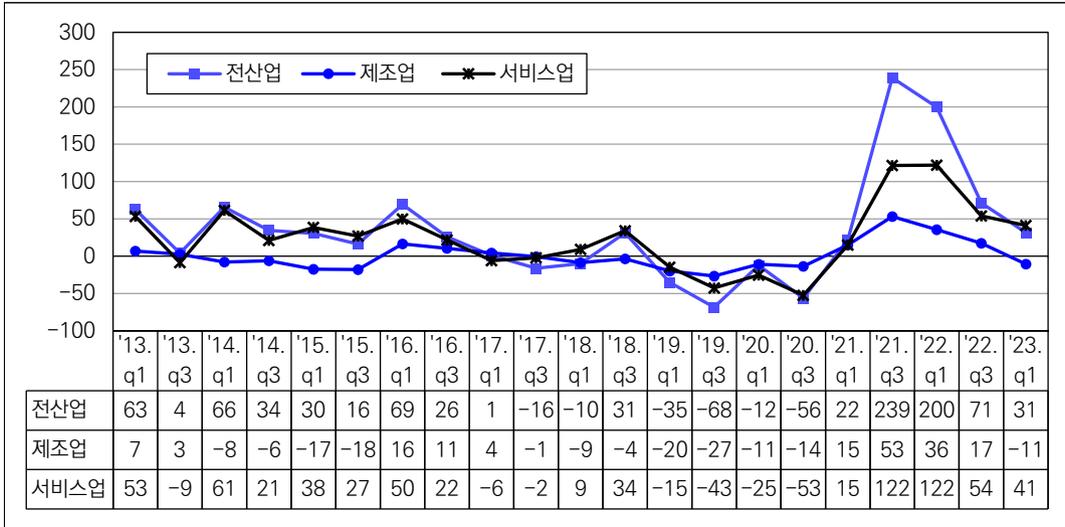


경제성장을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 추이

- 2023년 1분기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통계(반기자료)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05만 1천 명, 전년동기대비 3만 1천 명 증가함을 보임.
 -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구인인원은 조사기준일(상반기 : 4월 1일, 하반기 : 10월 1일) 이전 3개월 동안 대외적인 구인활동*을 통하여 구인한 인원임.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(1. 1.~3. 31./7. 1.~9. 30.) 사이에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용인원이 아닌, 최초 모집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 했던 모집인원을 구인인원으로 산정함. (* 홈페이지 모집공고, 신문 등에 채용공고, 고용센터에 구인요청, 친지 등에게 소개를 요청한 경우 등)

[그림 1] 구인인원 증감 추이

(단위 : 전년동기대비, 천 명)



주 : 1) 2013~2017년은 표준산업분류 9차, 2018년 이후는 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.
 2) 서비스업은 G.도소매, H.운수창고, I.숙박음식, J.정보통신, K.금융보험, L.부동산임대, M.전문과학, N.사업시설관리지원업, P.교육, Q.보건사회복지, R.예술스포츠, S.협회·기타개인서비스업을 포함.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」, 각 연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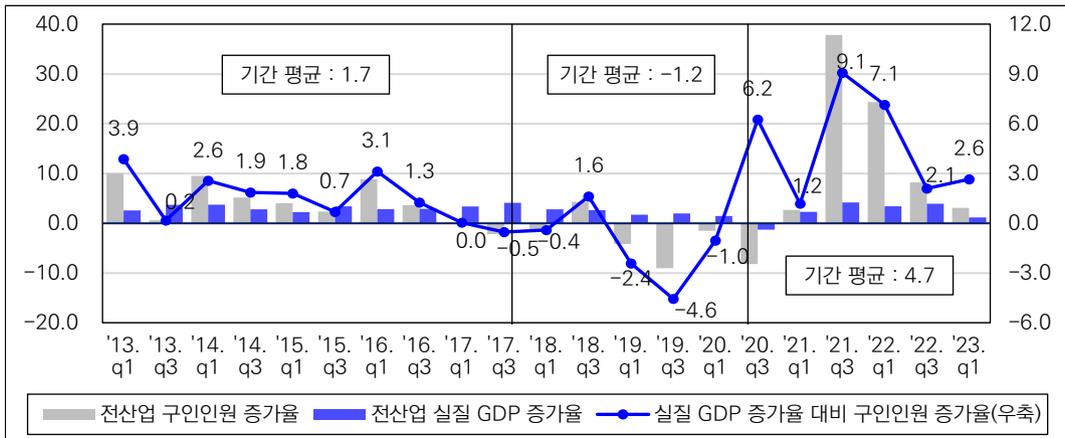
- [그림 1]을 보면 2017년 1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던 구인인원은 2017년 3분기 이후 이어진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확산 영향**으로 2020년 3분기까지 감소하였음.
(**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기준 2017년 9월(정점)부터 경기 위축이 시작되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2020년 5월(저점)까지 경기수축국면이 진행)
- 2021~22년 중에는 코로나19 확산 위기로부터의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방역정책 완화와 일상으로의 회복 등에 대한 기대심리로 서비스업에서 구인수요가 큰 폭 증가하였으며, 빠른 국내 경기 개선과 수출 호조 영향으로 제조업 구인인원도 증가하였음. 최근 구인수요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고 있으나 2021~22년이 이례적으로 큰 폭 증가한 것임을 감안하면 최근까지 구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증가분 대부분은 서비스업에서의 구인수요가 차지함.

○ 지난 10년간 구인인원 추이를 보면 구인수요는 대체로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한 것으로 보임. 이러한 구인수요의 증감이 경제성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증가 혹은 감소한 것인지 계산해 봄.

- 이 글에서는 경제가 1% 변화할 때 구인 인원의 % 변화를 구인인원 탄성치로 정의하고,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로 계산함.
- 구인인원 탄성치(=구인인원 증가율/GDP 증가율)를 통해 구인 수요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알 수 있음.

[그림 2] 전산업 GDP 증가율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 추이

(단위 : 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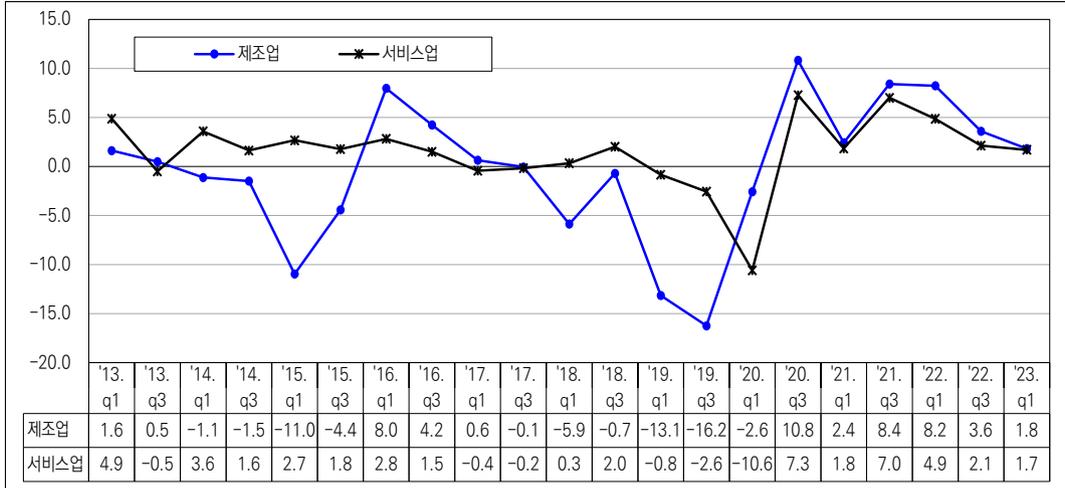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전산업 실질 GDP는 A.농림어업 및 O.공공행정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을 의미함.
 2) 실질 GDP는 연쇄가중법에 의해 산출되어 구성항목의 합계 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, 농림어업 및 공공행정이 제외된 실질 GDP는 한국은행의 연쇄시계열 합산 및 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.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», 각 연도;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», 각 연도.

- 2013년 1분기~2023년 1분기까지 실질 GDP 증가율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 평균은 약 1.7로 계산됨. 단, 경제의 단기적 변동이 큰 경우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성장률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의 변동도 심해질 수 있으므로,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보면(2013년 1분기~2019년 3분기) 평균은 약 0.6으로 나타남.
(참고로, 2013년 1분기~2023년 1분기까지 실질 GDP 증가율과 구인인원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0.52, 2013년 1분기~2019년 3분기까지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.24임)
 -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구인인원 탄성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,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음. 급격한 경제 충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생산이 1% 변화할 때 구인 인원은 약 0.6% 정도 변화한 것으로 계산됨.
 - 기준순환일을 참고하여 경기수축기와 확장기로 나누어 살펴보면, 경기확장기인 2013년 1분기~2017년 1분기까지 기간은 국내총생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구인인원도 증가하며, 경제성장률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 평균은 1.7로 생산이 1% 증가할 때 구인인원은 평균 약 1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경기수축기에 해당하는 2017년 3분기~2020년 1분기까지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지만 구인수요는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은 음(-)의 값을 가지고, 기간 평균은 -1.2임.
 - 2022년 3분기에서 2023년 1분기 기간의 구인인원 탄성치는 약 2.4로 생산 변화 대비 구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임. 과거 기간과 비교해 볼 때 이전 경기 확장기 평균 보다는도 높은 수준이긴 하나, 이것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복기의 단기적 변동 영향이 잔존한 결과인지, 사업체 노동수요의 민감성이 구조적으로 변화한 것인지는 자료의 축적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임.
- 경제성장률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을 산업별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, 제조업 구인수요가 제조업 생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(그림 3 참조).
-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을 보면 제조업은 생산 증가율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이 양(+)
음(-)을 기록하며, 생산 증가율 대비 구인수요 증가율 변동이 급격함. 동 기간에서 서비스업은 구인인원 탄성치가 대체로 양(+)
의 값을 나타내며,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.
 -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에서도 양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구인인원 증가폭이 제조업보다 컸으나, 각 산업별 생산 증가율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은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컸음.
 - 한편, 서비스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서비스업 유형별 생산 증가율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, 숙박서비스업, 예술스포츠, 기타개인서비스업이 포함된 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, 운수창고업이 포함된 유통서비스업이 생산 증가율 대비 구인수요 증가율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(그림 4 참조). **KLI**

[그림 3] 산업별 GDP 증가율 대비 산업별 구인인원 증가율

(단위 : 전년동기대비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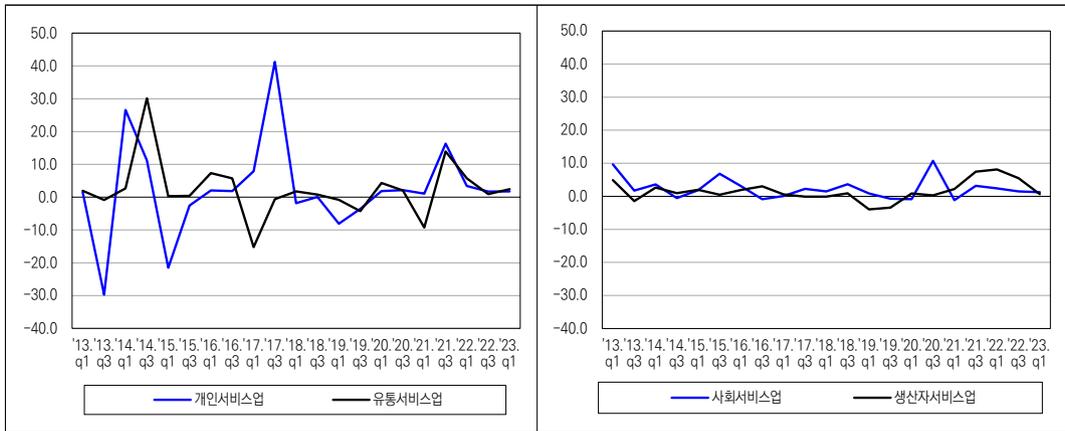
주 : 1) 서비스업은 공공행정을 제외하고, 도소매, 숙박음식, 운수창고, 정보통신, 금융보험, 부동산업, 전문과학, 사업지원서비스업, 교육, 보건사회복지, 예술스포츠, 기타개인서비스업을 포함.

2) 실질 GDP는 연쇄가중법에 의해 산출되어 구성항목의 합계 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, 서비스업 실질 GDP는 한국은행의 연쇄시계열 합산 및 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», 각 연도;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», 각 연도.

[그림 4] 유형별 서비스업 GDP 증가율 대비 구인인원 증가율

(단위 : 전년동기대비, %)



주 : 1) 개인서비스업은 숙박음식, 예술스포츠, 기타개인서비스업을, 사회서비스업은 교육, 보건사회복지업을, 생산자서비스업은 금융보험, 부동산업, 정보통신, 전문과학, 사업지원서비스업을, 유통서비스업은 도소매업, 운수창고업을 포함.

2) 실질 GDP는 연쇄가중법에 의해 산출되어 구성항목의 합계 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, 각 유형별 서비스업 생산은 한국은행의 연쇄시계열 합산 및 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», 각 연도;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», 각 연도.

(이기범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